

기형도 시에 나타난 공간 연구*

- 사회심리적 관점으로

이 주 언**

차 례

- | | |
|---------------------|------------------|
| 1. 서론 | 4. 욕망이 투사된 주름 공간 |
| 2. 침묵과 배제의 공간 | 5. 결론 |
| 3. 상징계의 분열을 보여주는 공간 | |

국문초록

기형도는 삶의 실상을 미학적 형상화를 통해 드러낸 시인이다. 특히 다양한 공간들을 시적 형상화로써 드러내는데, 당대 사회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이는 시인의 저항 의지가 다양한 공간들 속에서 전략화된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다. 기형도 시의 공간들은 권력과 관련된 의미작용을 하며 담론을 함의한다. 본고는 기형도의 시에서 형상화된 이런 공간들을 사회적 메커니즘과 인간 행동이나 심리와의 관련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당대 사회에 대한 시인의 문제의식을 읽어내고자 한다. 그의 시는 권력이 작동되는 공간에서 담론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상징계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9029)

** 창원대학교 강사

의 균열 지점을 드러내거나, 시적 주체의 토포필리아적 공간들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런 공간들의 시적 형상화는 저항성과 더불어 기형도의 시가 미학적 개성을 갖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 주목하여 기형도 시의 공간을 사회심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세 범주로 볼 수 있다.

먼저, 침묵과 배제의 공간은 사람들이 사회체제로 편입되고 권력에 순응하게 되는 곳이며, 길들이려 하거나 길들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다. 시에서는 가짜 친절과 억압이 행사되는 골목, 대학 교정, 사무실, 행사장 등으로 형상화된다. 그곳에서는 권력의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에 따른 고뇌의 심리를 드러내는 인물들이 나타난다. 편중된 권력을 정당한 것인 양 대중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만드는 공간이기도 하다. 둘째, 상징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공간에서 시적 주체는 분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없거나 처음 보는 공간인 듯 낯설을 느끼게 된다. 안개 낀 방죽, 백야의 거리, 망자의 혀가 흘러넘치는 거리, 얼음장 밑 등이 해당한다. 이는 상징계가 내포하고 있는 틈과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며, 당대 도시인의 트라우마적 존재 양상들에 대한 서사이다. 셋째는 시적 주체의 욕망이 투사된 주름 공간이다. 자연과 정신의 겹, 신체와 영혼으로 가득 채워지는 겹, 규칙화된 공간과 혼돈 공간의 겹이라 할 지점에 주름 공간이 있다. 기형도의 시에서 주름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유년의 집, 숲으로 된 성, 포도밭 묘지, 악기가 있는 어둡고 텅 빈 방, 어두운 천막교회 등이다. 상징계 진입 이전의 공간이거나 시적 주체가 안주하고픈, 생성의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이다.

사회심리학의 장(場)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심리적 경험은 여러 상황들 간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구성되며 이는 상호작용의 장을 형성한다고 한다. 기형도의 시에서 형상화된 다양한 공간들도 당대의 개인적·사회적 여러 정황들과 시인의 심리적 환경 등이 맞물려 형성된 것이다. 그 결과 삶이 실현되는 우리의 공간을 되돌아보게 하고, 주체적·능동적 삶에 대해 숙고하게 만든다. 이 연구는 기형도 시인이 활동했던 1980년대

의 사회적 상황과 시적 주체의 공간 인식과의 관련성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세계 속에 내던져진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는 일일 것이다.

주제어 : 사회적 공간, 담론, 상징계, 균열 공간, 배제, 주름 공간

1. 서론

공간은 모든 것이 존재하기 위한 기반이며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간을 자연적 혹은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 차원의 개념이다. 인간은 사회생활로 인해 서로 부딪치거나 협력하면서 공간을 쪼개고 구획 짓고 새롭게 변형시키기도 한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될 때 공간은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공간이 된다. 인간의 욕망이 실행되는 곳일 뿐 아니라, 동일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활동, 다양한 관계, 감정 등에 의해 모두 다르게 인식된다. 문학 텍스트 속의 공간 또한 이런 사회적 삶의 특성이 반영되어 생성된 것이다. 즉, 작가가 겪고 목격하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취사선택하여 재배치한 결과로써 생성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이 권력과 관련된 의미작용을 함으로써 다양한 담론을 함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형도 시에 나타난 공간들에 주목하여 그것이 담지한 사회심리적 의미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형도 시에서 세계에 대한 저항 의지는 많은 공간들 속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즉 기형도 시의 저항성이 다양한 공간들 속에서 전략화된다는 관점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런 면을 시적 주체의 부정성에 초점을 맞춰 논한 연구가 많으나 공간성과 관련된 시적 전략의 차원에서 고찰한 경우는 거의 없다. 본고는 기형도의 시가 세계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낸 사회적 행위의 결과물이

며, 그것을 미학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사회적 행위란 보편성의 표현, 문화의 표현, 개인의 표현이 결집된 활동이며, 이때 사회심리학의 역할은 사회에서 묻는 질문들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다.¹⁾ 기형도 시인도 사회심리적 관점으로 시의 기능과 시의 방향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일기²⁾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질문이 던져져야 하는 상황과의 투쟁을 의미”한다고 했고 “그 설정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볼 때 기형도의 시에 범상치 않은 공간들이 많이 표현된다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다양한 공간을 시적 형상화로써 드러낸 것은 당대 사회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다듬은 결과 나름대로 설정한 하나의 방향일 것이다. 그가 시에서 보여주는 특이한 공간들이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추측케 한다.

그동안 기형도의 시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부정성,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죽음, 타나토스적 욕망 등 비극적 세계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았다. 최근에는 인식체계, 표현기법, 물질적 상상력, 정신분석적 연구 등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공간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기형도 시의 공간 연구들을 살펴보면 ‘빈집’의 이미지³⁾, ‘빈 장소’의 토포포비아⁴⁾, 부정의 실존 공간 ‘도시’와 긍정의

-
- 1) 민경환, 『사회심리학의 방법론 논쟁 : 그 소개 및 한국의 사회심리학에 던지는 의미』, 『사회과학과정정책연구』 8권 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185-186쪽.
 - 2) 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문이다. (중략) 예술 장르가 최초에 성립되었을 때 본연적으로 갖는 기능이란 두말할 필요 없이 ‘있음’에 귀착한다. 따라서 이런 질문은 그 질문이 던져져야 하는 상황과의 투쟁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미 ‘시’의 왜소화, 편협화, 무기력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일 것이다. 한때는 시가 공동 집단 의식의 대변 언어로서 회자한 적이 있었다. (중략) 그렇다면 시가 ‘구원’으로서 군림해야 할 지금의 위치는? 그 설정 방향은?(기형도의 1982년 9월 25일 일기,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339쪽)
 - 3) 권태효, 『기형도의 시에 투영된 ‘빈집’의 이미지와 그 지향점』, 『시민인문학』 제8집,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지향 공간 ‘자연’⁵⁾, 침상도시의 로컬리티⁶⁾, 이주로 인한 공간 이동⁷⁾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은 현실적 삶의 공간이 시적 주체의 비극적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끼쳤음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 주도의 갑작스런 근대화와 그에 따른 시인의 비극적 인식에 근거해 기형도 시의 공간들을 고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런 비극적 세계관에 침잠하지 않고, 독자들로 하여금 삶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전략적 차원에서 기형도 시적 주체의 공간 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기형도 시의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상징 세계나 근대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인식, 비가시적 세계를 열어 보이는 특이성, 그리고 생성의 에너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시적 공간들에 주목하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점점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처음엔 부모로부터 어떤 행위가 안전하거나 위험한지, 어떤 행위가 예의 바르거나 비도덕적인지, 또 어떤 행위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인지 등 허용과 금지의 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익히게 된다. 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화의 과정이다. 이후 교육기관을 거치면서 점점 사회 제도에 익숙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이런 사회적 요소 즉 법, 교육, 관습 등이 작동하는 공간에서는 언어로 규정한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를 상징계의 공간이라 한다. 라캉은 인간 삶의 이런 측면을 분석하면서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라는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상상계를 거쳐서 이렇게 규범적이고 제도화된 상징계

-
- 4) 송지선, 『기형도 시의 근대성에 관한 ‘빈 장소’의 토포포비아 연구』, 『우리말글』 제89집, 우리말글학회, 2021.
 5) 한금화, 『기형도 시의 공간 의식 연구』, 『겨레어문학』 제40집, 겨레어문학회, 2008.
 6) 송지선, 『기형도 시에 나타난 침상도시(bed town)의 로컬리티 연구』, 『국어문학』 제60집, 국어문학회, 2015.
 7) 조동범, 『기형도 시에 나타난 근대 도시 공간 연구』, 『시민인문학』 제35집,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로 진입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이런 논의는 정신분석적 의미를 넘어 인간의 삶과 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해 숙고하게 만든다.

상징계로의 진입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이끌면서 사회의 질서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억눌리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나치게 스며들 때 어찌면 인간은 진정한 존재 방식이나 능동적 삶의 방식을 잃게 되는 건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당한 채 자본주의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마치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여기기도 한다. 상징계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런 삶 속에서는 가끔 불안울 느끼거나 회의적인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난다. 이 순간이 사회적 공간의 어떤 좌표 지점에 위치한, 자신 혹은 타인들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실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형도의 작품들도 독자로 하여금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성찰하게 만드는데 이는 다양한 공간을 형상화해 보여줌으로써도 가능하게 된다.

이 연구는 당대의 삶과 그것의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시의 공간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에 깃든 인간을 함의하는 것이고, 특정한 상황에 처한 인간 주체와 사회적 실천 간의 매체이자 산물을 공간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사회심리학의 장(場)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공간 내에서 행위자가 지각한 모든 환경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형도의 시에서도 공간들은 사회적 메커니즘과 심리적 상황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구체화 된다. 이런 다양한 기제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그의 시적 공간들을 분석함으로써 당대 사회에 대해 시인이 제기한 담론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침묵과 배제의 공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위상적 존재로 인지하게 만들며, 자신의 좌표지점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에는 권력 관계가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좁게는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처럼 가족 내에서 질서의 형태를 띤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넓게는 국가기관 혹은 권력자와 일반 대중의 관계처럼 사회적 담론에서의 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담론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론에 대한 푸코의 논의를 보면 담론이 형성될 때는 일련의 절차들을 따라 동시에 통제, 선별, 조직, 재분배된다고 한다.⁸⁾ 즉,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기능이 동시에 작동한다. 기형도 시에서도 이런 작동들이 두드러지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일반 대중이 권력의 억압 속에 구조화되는 상징화의 과정과, 대중 스스로가 권력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떠안으며 그 구조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모습, 상징계의 구조에서 누군가 배제되는 모습 등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사 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8) 미셸 푸코, 허경 역, 『담론의 질서』, 세창출판사, 2020, 21쪽.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우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관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우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우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들을 날랐다

- 「專門家」 전문

이 시를 보면 너그러운 척 가면을 쓰고 아이들을 꺾는 “그”의 모습에서 상징 권력이 구조화되는 최초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길들이기 시작 단계의 “골목”은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의 공간이며 아직 담론 통제 이전의 공간이다. “우리는 또 갈아끼우면 되지/ 마음껏 골목에서 놀렴”이라며 서서히 아이들에게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심어주는 일로부터 권력의 미시적 침투가 시작된다. “그”가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우리 담장”을 이용해 아이들을 유혹하는 골목, 이곳이 권력 형성의 과정을 우화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일단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심어준 다음에 서서히 권력의 구조 아래 편성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도화된 집단으로의 이행 과정에서는 계급 구분 원칙에 의해 구성원 자격을 규정하는 속

성들이 만들어지고,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맥락의 속성들은 무화되는 경향이 있다.⁹⁾ 즉 개성들은 하나의 규칙성 속으로 사라져 용해되어 버린다. 이 시에서도 구성원의 자격은 복종과 침묵으로 읽히며 그 이외의 속성인 개성과 창의성은 무시당한다.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한 아이는 오히려 그 골목에서 추방되기도 한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절대복종을 위한 침묵만이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의 낙인이론을 보면,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부터 일탈자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한다. 이때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이유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떤 행동이 일탈적인 것으로 규정되는지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¹⁰⁾ 그러므로 아이디어를 낸 아이는 문제해결을 위해 발언했으나 이 “골목”에서는 일탈로 규정된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 사회구조의 망에서 배제당한다. 이런 사회에서의 개인의 능력은 그 체계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 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길들여진 대부분의 아이들도 길들여지기 전에는 모두가 의아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순종이 강요된 상황에 직면하자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신념이나 지식을 바꾸어버린다.¹¹⁾ 그래야만 그 집단에 적응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를 설득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기형도의 작품 중에서 권력화의 과정이 가장 전경화된 작품이다. 당대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정치·사회적 억압을 고스란히 그려낸 알레고리로 볼 수 있다. 또 어떤 상황에 대한 걱정을 잘 잊어버리는 아이들의 속성이 현대인의 속물적 속성으로 대변되어 중첩된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안겨줌으로써 반항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대중들을 권력의 하부구조에 편입시키는 과정을 잘 보여준 것이다. 동시에 깊이 고민하지 않고 달콤한 자본을 좇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9) 빼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7, 218쪽.

10) 이동원·박옥희, 『사회심리학』, 학지사, 2000, 383쪽.

11) 이훈구, 『사회심리학』, 법문사, 1995, 119-120쪽 참고.

이런 단순하고 획일적 속성이 불완전했던 상징 세계의 균열을 봉합해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專門家”의 “충실한” 노예가 되어버린 “아이들”은 시적 주체에게 하나의 트라우마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런 실상이 행해진 “골목”은 인식하기에 따라서 상징계의 균열 지점이 되거나 그것이 봉합된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대타자에게 사람들이 종속되는 상황에 대해 지젝은 ‘관찰되고 있는 장소와의 동일시’¹²⁾라고 분석한다. 아이가 부모의 눈을 의식하듯, 기호화된 주체는 대타자에 의해 관찰되고 종속된다. 감시망 아래에 놓인 주체는 대타자의 판단에 의해 기호화되고 종속되어 존재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득권이 권력을 생성시키고자 하는 공간에서는 먼저 일반 대중이 권력을 순수히 받아들이도록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주입시킨 후, 인지된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억압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읍에 처음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쏟아진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간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중략)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멀리 송전탑이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중략)

12) 슬라보예 지젝, 『까다로운 주체』, 구태현, 『히치콕의 카메라로 엘리엇과 프로스트 응시하기』, 『인문논총』 제55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6, 85쪽 재인용.

상처입은 몇몇 사내들은 험악한 욕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고장을 떠
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읊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 「안개」 부분

안개가 자주 끼는 소읍의 공간을 그리고 있다. 시 속의 인물들은 모두 안개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처음 들어와 살면서 적응할 때까지는 힘든 과정을 거친다. “아침 저녁으로” 생기는 안개는 자연 현상의 일종이지만 이 시에서는 누군가 정해놓은 사회적 질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공간에서 나름의 규율이다. 그 규율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읊에 처음 와본 사람은” 검열을 당하는 것처럼 긴장하게 된다.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에 “태양이 걸릴 때까지/ 안개의 軍團”이 계속 머무른다고 한다. 시에서는 안개 속에서 시적 주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다만 이 공간에서는 가끔씩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형식이 중요해 보인다.

안개가 낀 공간에서 시적 주체는 일행들과 떨어져 안개 속에 “홀로” “간혀 있음”의 경험을 한다. 사람들과의 연대를 박탈당하는 순간이며 갑작스런 소외 현상에 직면한다. 제도화된 문명의 힘 앞에서 검열당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안개의 軍團” 앞에서 “쓸쓸한 가축들처럼” 위축되는 사람들은 그 순간 거대한 “군단”의 군화 밑에 있는 미미한 존재로 변환된다. “어두워지면” 안개는 옷을 벗고, “공기는/ 회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찬다.” 그때 “식물들, 공장들이 빨려 들어가고” “사내의 반쪽이 안개에” 잘리기도 한다. 어둠이 왔을 때 생기는 자연의 이미지로 간주할 수 있으나,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여전하다. 두려움을 유발하고 불길함을 예견하는 복선과 같은 상황이다. 그러다 결국 이 읊에서 사건이

터지기도 한다.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하고 “醉客 하나가 일어 죽었”지만 모두가 “개인의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라고 한다. 안개의 폭력성이 공개적으로 은폐되면서 이 공간의 진실이 슬쩍 드러난다. 이런 진실은 기형도의 시적 주체가 자신도 진실을 모르는 척하면서 독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처 입고 욕설을 한 사내들은 침묵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발언을 함으로써 그 구조 내에서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발언한 후 이 소음에서 추방되거나, 둘 중 하나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 중에서 되돌아온 자가 없었으므로 진실은 더욱 멀어지고,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난다. 시의 주체는 이 소음 사람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언술을 한다. 이런 사회가 유지되는 것에는 일반 대중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있으며 권력의 속성에 동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개가 풀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여공들은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가게 된다.

이런 절차들을 따라 사회적 담론이 생산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안개가 낄으로써 통제당하고, 그 속에서 사건이 터져 선별 당하고 재조직된 후,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반복되는 듯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개의 정체에 대해 관심이 없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의 습관일 뿐이라고 여기며 의문을 달지 않는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 사람들은 아무런 “경계심”도 가지지 않고 사건에 대해 침묵한다. 이런 모습은 은폐된 채 권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바르트가 권력 사회를 분석한 유형 중에는 ‘동어반복’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을 정의할 때, 바로 그것에 의해서 정의하는 언어 과정을 말한다. 이런 동어반복 안에는 이중적인 살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언어가 살해당하고 합리적 사고가 살해당하는 것을 뜻한다.¹³⁾ 이 시에서도 소음 사람들의 인식을 따라가 보면

‘안개가 끼는 것은 안개가 끼기 때문이다’라는 동어반복이 추출될 뿐이다. 여기서 합리적 사고능력이 살해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시의 주체가 안개에 대해 비록 언어로 정의 내리지 않았지만, 담론의 기능을 잃은 행위의 반복은 동어반복과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행위 반복이 일어나는 안개의 공간에서도 동어반복과 마찬가지로 언어가 죽어가고 사람들의 합리적 사고력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무의자 밑에는 버려진 책들이 가득하였다
 은백양의 숲은 깊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는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아름다운 숲에 이르면 청년들은 각오한 듯
 눈을 감고 지나갔다, 돌층계 위에서
 나는 플라톤을 읽었다. 그때마다 총성이 울렸다
 목련철이 오면 친구들은 감옥과 군대로 흩어졌고
 시를 쓰던 후배는 자신이 기관원이라고 털어놓았다
 존경하는 교수가 있었으나 그분은 원체 말이 없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자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그리고 졸업이었다, 대학을 떠나기가 두려웠다

- 「대학 시절」 전문

이 시를 보면 1980년대 대학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짧은 시 속에서는 책을 읽는 것보다 정의를 더 중시하며 행동했던 학생들, 겉으로 행동하지는 못해도 마음을 온통 쏟고 있는 학생들, 침묵하는 교수님, 그리고 권력에 포섭당하거나 강제되어 기관원이 된 학생, 감옥과 군대로 흩어진 친구 등이 등장한다. 규율에 의한 권력 작동의 대표적 장소로 푸코는 학교, 병원, 군대, 감옥을 예로 들었다. 그만큼 집단적 규율이 용이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공간들에서는 규범화된 생활이 필수적인데 거기서 이탈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심리적 배제를 당하게

13) 롤랑 바르트, 정현 역, 『신화론』, 현대미학사, 1995, 84-85쪽.

된다. 특히 학교는 감시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겸비한 공간이며, 대학생들에게 국가라는 대타자에 저항할 지식 습득의 기회도 큰 곳이다. 게다가 당대의 정부는 정통성 문제와 더불어 더욱 강렬히 대중들의 저항을 받았다. 이때 대학은 저항하는 자들과 이를 억제하려는 자들의 물리적·심리적 충돌이 가장 큰 공간이었을 것이다.

이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부분은 “은백양의 숲”이다. 아름답지만 “나뭇잎조차 무기”로 쓰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 지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아름다운 공간이 감시와 규율의 체계 속에서 저항의 공간으로 변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숲에 이르면 청년들은 각오한 듯/ 눈을 감고 지나”간 것이 아닐까. 전면에 나서 투쟁을 하지 못했으므로 이 공간에서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역설적 심리의 표현일 것이다. 속으로야 부글부글 끓겠지만 가족과 자신의 앞날을 위해 선뜻 나서지 못한 일반 학생들의 모습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도 결정적 순간에는 눌러두었던 저항의 요구가 행동으로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기형도 시인은 당시의 상황을 “전정” 즉 가지치기에 비유하며 자신의 생각을 일기로 남겼다.¹⁴⁾ 과수뿐 아니라 인간의 사육 기간 중에도 전정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정은 타의에 의한 단절의 전정과 자신에 의한 주관적인 전정이 있다고 썼다. 전자는 여러 권력에의 힘에 의한 소극적 전정이고 후자는 스스로가 선택한 적극적 전정이다. 시인 자신은 후자의 전정이라 할 군입대라는 잠적을 감행한 건지 모른다고 자술한다. 침묵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택한, 평범한 학생으로는 학교에 남아 있기 힘든 시절이었고 쓸쓸하고 살벌했던 대학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 외 침묵해야 하는 공간, 훈육과 배제의 공간으로는 사무실(『오후 4시의 희망』), 행사장(『홀린 사람』) 등으로 형상화되어 길들어지는 삶의 실상을 보여준다. 이런 공간에서는 억압의 모습이 은폐되고 사람들이 습관적·자발적으로 권력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모습이 전경화되어 있다.

14) 기형도, 『기형도 전집』, 329쪽.

이것은 위계화된 권력구조나 부당한 힘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며 그 힘이 정당한 것인 양 사람들에게 오인시킴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다.¹⁵⁾ 이처럼 침묵과 배제의 공간은 담론과 미시권력과 관련된 공간이다. 이때의 권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개처럼 슬며시 스며들어 인간의 행동을 조종한다고 볼 수 있다. 강압적이거나 혹은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길들이는 공간이다. 그러나 시적 주체가 이런 양상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상징계로의 통합이라는 작업이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점이 된다.

3. 상징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공간

상징계의 균열은 제도의 규율 아래 있는 삶에 회의를 느끼고 의문을 제기하는 곳에서 나타난다. 본고는 시적 주체가 상징체계 내의 삶을 응시하면서 삶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형상화한 공간을 상징계의 균열 지점으로 범주화했다. 이런 공간들에서 우리는 낯섬을 느끼게 되는데 기형도 시인이 이런 공간들을 형상화한 것은 눈앞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상 너머를 보려는 것이고, 상징계에 가끔씩 출몰하지만 상징계로 통합될 수 없는 불명확하고 기이한 실재적 요인들을 인식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지젝에 의하면 이런 실재 혹은 실재에 대한 인식은 상징화에 저항하는 원천이 된다.¹⁶⁾ 그러므로 이 공간들이 상징적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로 하여금 낯섬과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익숙함에 젖어 있는 세속적 삶에 대해 회의하고 질문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회적 메커니즘에 의해 상징계에서 소외되었던 수동적 주체는 이런 실재계적 인식을 통해 능동적 주체로 전환할 수 있다. 상징계적 메커니즘을 뛰어넘

15) 빼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역, 앞의 책, 69-72쪽 참고.

16)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002, 227쪽.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포섭한 상징계가 그 자체 내에 수많은 균열과 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그 균열과 틈을 통해 인간의 본래적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기형도의 시에서도 시적 주체의 이런 인식으로 인해 상징계가 지니고 있던 자체의 균열을 목도하고 동시에 삶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공간들이 나타난다.

그런 날이면 언제나
 이상하기도 하지, 나는
 어느새 처음 보는 푸른 저녁을 걷고
 있는 것이다, 검고 마른 나무들
 아래로 제각기 다른 얼굴들을 한
 사람들은 무엇엔가 열중하며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혹은 좁은 낭하를 지나
 이상하기도 하지, 가벼운 구름들같이
 서로를 통과해가는

나는 그것을 예감이라 부른다. 모든 움직임은 홀연히 정지
 하고, 거리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고 거대한 숨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그런 때를 조심해야 한다, 진공 속에서 진자는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검은 외투를 입은 그 사람들은 다시 저 아래로
 태연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금씩 흔들리는
 것은 무방하지 않은가.

나는 그것을 본다

(중략)

공기는 푸른 유리병, 그러나
 어둠이 내리면 곧 투명해질 것이다, 대기는
 그 속에 둥글고 빈 통로를 얼마나 무수히 감추고 있는가!
 누군가 천천히 속삭인다, 여보게
 우리의 생활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세상은 얼마나 많은 법칙들을 숨기고 있는가

- 「어느 푸른 저녁」 부분

이 시의 제목을 보면 “저녁”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보면 공간적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는 제목에 따른 시간적 의미를 분석하기보다는 독자들에게 더 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낯설고 특이한 공간, 즉 저녁에 임한 공간적 특성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시의 첫 부분 “그런 날이면 이상하기도 하지”라는 구절에서, 시의 주체가 이상한 기류를 거리에서 가끔씩 감지하곤 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기류는 “모든 움직임이 홀연히 정지”하는 저녁, 거리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일 때 불길한 징조를 “예감”하게 만든다. “공기”는 “투명한 유리병”이며, “대기”는 “둥글고 빈 통로”를 “무수히 감추고 있다” 한다. 이처럼 기형도의 시에서 공기와 대기가 딱딱한 물질성으로 변환되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상상력은 낯섦과 함께 독자로 하여금 불안을 안겨준다. 우리가 늘 숨 쉬고 있는 공기가 “빈 통로” 혹은 “유리병”이 된다는 것은 익숙한 상황에 대한 뒤집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어떠한 일이든 당연한 일로 여기며 안주하는 것에 대한 경계이며, 현상 이면에 있을 다른 모든 가능성을 더듬어 보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운다. 그러니 대기가 감추고 있는 무한 통로들은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 이 시에 나오는 “통로”는 깨어있는 의식을 집어삼켜 가는 과정을 시각화한 공간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런데 시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은 모두 태연한 모습이다. “무엇엔가 열중하며 걸어오고” “가벼운 구름들같이 서로를 통과”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적 주체는 “나는 그것을 습관이라 부른다”고 언술한다. 상징계적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 것 같다. 그럼에도 삶의 공간 곳곳에 포진해 있는 상징계적 제도나 격자들이 은폐된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쉽게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시의 주체만이 이런 은폐된 격자와 그것의 균열 공간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숨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 갈 듯한 불길한 상황을 체감하고 있으며, 그런 순간에도 무감각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때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겠지만 시의 주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주듯 상황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처럼 사람들과 함께 기만의 공간에 던져진 채, 시의 주체는 그 공간이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혼자 인식하고 있는 듯한 불안과 공포에 포섭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무언가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이에 대해 “나는 그것을 예감이라 부른다”고 언술한다. 그러므로 이 시의 “거리”는 시의 주체만이 체감하고 있는 공간을 형상화 한 것이다.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상황, 거리에서 “또다시 모든 움직임이 홀연히 정지”하는 현상을 반복 체험한다. 이 정지의 순간이 상징계의 균열 지점을 엿보는 순간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보게” “세상은 얼마나 많은 법칙들을 숨기고 있는가.”라며 속삭이는 내부의 목소리가 들린다. 사회적 메커니즘 속에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많은 법칙들이 여러 층위로 감추어져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당대 정치 권력의 손길들, 사회적 관계들 혹은 가족 관계에서 행사되는 권력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간 속에서 시적 주체는 내부적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상징계의 균열 지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적 공간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적 삶이나 본질적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해 숙고하게 만든다.

가끔씩 어떤 ‘순간들’을 만난다. 그 ‘순간들은 아주 낮은 것들이고 그 ‘낮습’은 아주 익숙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대개 어떤 흐름의 불연속선들이 접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방향으로 튕겨 나갈지 모르는, 불안과 가능성의 세계가 그때 뛰어들어온다. 그 순간들은 위협하고 동시에 위대하다.¹⁷⁾

17) 『어느 푸른 저녁』의 시작 메모, 『기형도 전집』 342쪽 재인용.

위의 시작 메모는 상징계의 균열 지점에 대한 기형도 시인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산문이라 할 수 있다. 익숙한 듯하면서도 낯선 기분으로 “어떤 흐름의 불연속선들이 접하는 지점에서” 시인이 불안과 가능성을 함께 담지한 실재계의 공간을 체험한 것으로 보인다. 라캉에 의하면 상징계에 의해 길들여질 수 없는 실재는 왜곡된 이미지로 표현된다. 기형도 시에서도 마치 윤희의 세계와 같이 익숙한 듯하면서 낯설고 불안한 느낌을 주는 공간들이 많이 형상화된 것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실재의 공간이자 상징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공간인 셈이다. 또한 시인은 그 순간이 “위험”한 것만 아니라 “위대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인의 의식에서 저항성이 부각되는 일면이 있다.

도시에 전쟁처럼 눈이 내린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가로등 아래 모여서 눈을 털고 있다. 나는 어디로 가서 내 나이를 털어야 할까? 지나간 봄 화장한 기억의 꽃밭 가득 아직도 무꽃이 흔들리고 있을까? 사방으로 인적 끊어진 꽃밭, 새끼줄 따라 뛰어가며 썩은 꽃잎들끼리 모여 울고 있을까.

우리는 새벽 안개 속에 뜬 철교 위에서 있다. 눈발은 수천 장 흰 손수건을 흔들며 河口로 뛰어가고 너는 말했다. 물이 보여. 얼음장 밑으로 수상한 푸른 빛.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면 은빛으로 반짝이며 떨어지는 그대 소중한 웃음. 안개 속으로 물빛이 되어 새떼가 녹아드는 게 보여? 우리가.

- 『도시의 눈 - 겨울 版畫2』 전문

눈 내리는 “도시”로부터 심상이 시작된 이 시에는 “인적 끊어진 꽃밭”이라는 기억 속 공간과 ‘얼음장 밑’이라는 반투명 공간이 나타난다. 이중 “얼음장 밑”처럼 파악하기 힘든 공간을 보여주는 방식이 기형도 시에 나타난 공간의 특징 중 하나다. 즉, 독자로 하여금 공간의 특성을 파악해야 할 과제를 안겨주는 셈이다. 1연의 “꽃밭”과 2연의 “얼음장 밑”은 포

면적으로 대조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전자는 기억의 공간에 가깝고 후자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공간에 가깝다. 그래서 전자는 향수와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후자는 마음먹고 실체를 파악해야 할 공간이다. 눈 내리는 도시라는 공간에 서서 시적 주체가 열어 보이는 세계는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

이 시의 전체적 공간구조는 세 개의 층위에 놓여 있다. 실제로 눈이 내리고 있는 현실의 상징계 공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전-상징계적 공간, 그리고 푸른 얼음 밑으로 비유되는 실재계적 공간이다. 그러므로 1연은 상징계 공간과 전(前)상징계적 공간, 2연은 상징계 공간과 실재계 공간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연은 우리가 상징계로 편입되기 전의 세계 즉 잃어버린 상상계와 당대 도시인이 처한 상황이 중첩된다. “도시에 전쟁처럼 눈이 내린다”라는 구절과 “눈”을 털 듯 어디선가 털어 버려야 할 “나이”라는 구절을 봤을 때, 도시의 눈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지나간 봄의 화창한 기억의 꽃밭”의 “꽃잎” 이미지와 “눈발”들이 병치됨으로써 좀 더 깊은 의미를 함의한다. 눈이 내리는 도시는, 세상사를 몰랐으나 안온했던 과거의 “꽃밭”을 환기시킨다. 그리하여 지금은 사방으로 인적이 끊겨버린 시적 주체의 과거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또 자신이 떠나버린 꽃밭의 눈발들은 “무꽃처럼 흔들리고” 있거나, “새끼줄을 따라”가거나, 어딘가에 “모여 울고” 있는 “썩은 꽃잎”들로 비유되고 있다. 상징계의 공간에서 바라보는 전(前)상징계의 공간은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거나 비어 있거나 혹은 썩은 꽃잎의 공간으로 이미지화된다.

2연 “얼음장 밑”은 시적 주체의 심리적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눈 내리는 도시 안에 생성된 낯선 공간이다.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나 공간과 맞닥뜨릴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2연은 “우리”가 함께 말하고 행동하고 낯선 공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얼음장 밑”이라는 낯선 공간은 “수상한 푸른 빛”이 흐르

는 공간이며 두 인물에게 동일한 형상으로 지각된다. 다른 시들과 달리 시적 주체 혼자에게만 보이는 낯선 공간이 아니라는 점과, “너”라는 인물 혹은 눈발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동료적 연대감이 생긴다. 이로써 시적 주체가 처한 공간에 대해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된다. 거기서는 눈발이 “안개 속으로 물빛이 되어 새떼가 녹아”들 듯하고 있으며 그 새떼는 다름 아닌 “우리”라고 말한다. 즉 시의 주체와 눈발이 새떼와 같은 “우리”로 형상화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시의 주체와 눈발을 가리키는지, 지금 눈을 맞고 있는 이 공간의 사람들인지, 혹은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그것은 시를 어떤 시각으로 읽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 있다.

기형도의 시에서 ‘눈’이나 ‘구름’은 안착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존재의 비유로 종종 나타난다. 떠돌이 같은 “눈발”은 “河口”로 뛰어가고 그 하구는 열어 있고 그래서 “수상한 푸른 빛”이 위협의 표지로 인식된다. 사회인지적 맥락에서 볼 때 사람들은 원하지 않거나 낯선 상황에 부딪히면 주로 선택적 회피를 하게 되어 모르는 척 지나쳐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시의 인물은 “얼음장 밑”의 공간을 끝까지 응시한다. 상징계라 할 수 있는 생활의 공간과 잊히거나 은폐된 공간의 경계 지점에서서 양쪽을 모두를 고통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써 시인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공간을 재인식하게 만든다.

 싸락눈들은 비명을 지르며 튀어오른다.
 흙집투성이 흑백의 字幕 속을
 한 사내가 천천히 걷고 있다.
 무슨 農具처럼 굵은 손가락들, 어디선가 빠뜨려버린
 몇 병의 취기를 기억해내며 사내는
 문닫힌 商會 앞에서 마지막 담배와 헤어진다.
 빈 골목은 펼쳐진 담요처럼 쓸쓸한데
 싸락눈 낮은 축광 위로 길게 흔들리는
 기침 소리 몇, 검게 얼어붙은 간판 밑을 지나

휘적휘적 사내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밤, 빛과 어둠을 분간할 수 없는
팡팡 빛나는, 이 무서운 白夜
밟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눈길을 만들며
軍用 파카 속에서 청얼거리는 어린 아들을 업은 채

- 「白夜」 부분

눈이 온 밤이라는 백야의 공간을 배경을 하고 있지만 “낮은 촉광”이 시사하듯 무언가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다. 백야의 공간에 있는 사내는 마치 “字幕 속을” 가는 듯 낮설고 베일에 싸인 느낌을 준다. “골목”에서는 흰 담요를 깔아놓은 듯한 신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감지되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그 속의 존재들이 훤히 드러나게 된다. 어쩌면 감시의 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보여주는 시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사내”가 속한 공간은 시적 주체의 시선 외에도 다른 이의 시선도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사내가 “字幕” 속을 걸어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스크린 같은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며 스크린 속에서 사내의 모든 행동은 영상처럼 드러나게 된다.

지젝에 의하면 상상적 동일시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것이고, 상징적 동일시는 우리가 관찰당하는 위치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위치와 동일시하는 것이다.¹⁸⁾ 즉 상징적 동일시는 감시의 체계를 내면화한다. 그러므로 이미지 스크린은 대타자가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하고 실제계의 시선을 차단함으로써 우리의 눈을 길들인다.¹⁹⁾ 이 시에서도 ‘백야’라는 공간적 배경은 하나의 이미지 스크린 즉 이데올로기적 환상 공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사내”는 지금 그 속에 존재하면서 “흠집투성이의 흑백의 자막” 속을 걸어간다. 그러므로 정작 행위 당사자인 “사

18)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앞의 책, 184쪽.

19) 최영송, 앞의 책, 40-41쪽.

내”는 자신이 스크린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여기서 시적 주체는, 스크린 바깥에서 “사내”를 응시하고 있는, 대타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위치에 있다. 즉 상징계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명료한 지각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처럼 불투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시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스크린에 구멍이 나 있다는 점이다. 시·공간의 이미지인 “白夜”와 언어기호인 “字幕”이 스크린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때, 시적 주체가 스크린 즉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스크린 기능에 구멍이 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상징계는 그 자체에 구멍, 틈, 균열 등이 얼룩처럼 존재하기에 그 자리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균열 지점에서 보여주려는 실제의 공간은 일상생활 공간처럼 물리적·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라캉의 ‘실재’ 개념과 연결되며, 실재는 신이나 시간처럼 현실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속성을 지닌 채 삶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상징화의 잔여물로만 표현되는데, 실재가 상징적 재현의 한계 지점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²⁰⁾ 균열 지점은 상징체계 내로 환원될 수 없는 실제의 공간이므로 낯선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시에서도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유도하고 있는 스크린의 완벽한 포장이라는 작동은 시적 주체가 이런 균열 공간을 인식함으로써 방해받는다.²¹⁾

이 외에도 한 사내가 크고 검은 새로 변하여 날게 되는 조치원역(『鳥致院』), 번들거리는 검은 유리창(『물속 사막』) 진눈깨비 내리는 귀갓길 거리(『진눈깨비』) 등도 분명한 시야를 보여주지 못하고 낮섬을 안겨주

20) 박찬부, 『재현과 그 불만: 라캉의 실재론』, 『신영어영문학』 제35집, 신영어영문학회, 2006, 86쪽.

21) 라캉의 실재계가 결핍, 타자 등 부족함을 채워주는 요소로 이해되는 반면, 지체의 실재계는 나머지, 여분, 잉여쾌락 등 넘침의 의미로 쓰이거나 상징계의 기획을 교란하고 전복하는 부정성으로 사용한다.(권택영, 『돌아온 미학: 지체의 실재계』, 『비평과 이론』 제8권, 비평과이론학회, 87쪽)

면서 삶의 본질적 의미를 떠올리게 만드는 공간이다. 이로써 습관화된 상징계적 삶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형도 시인이 이런 장면들을 형상화한 이유는 상징 세계의 격자를 가로지르고자 하는 욕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징적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와닿으며 낯선 장면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마치 유령의 세계와 같이 익숙한 듯하면서도 낯설고 불안한 느낌을 준다.²²⁾ 이때의 시적 주체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러 균열 공간들을 자신이 느낀 대로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닐까. 이처럼 상징계의 균열을 드러내는 공간은 시적 주체의 사회심리적 상태에 따라 변형·왜곡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상징계는 우리가 사회적 질서 안에 안주하게 만든 세계이며 사회적 권력이 작동되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회적 질서를 가끔씩 벗어나, 존재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고민하거나 습관처럼 진행되는 삶에 대해 의문을 품고 회의하기도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 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에 씌어진 부분과 씌어지지 않은 부분이 그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이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며 이러한 불행한 쾌락들이 끊임없이 시를 괴롭힌다.²³⁾

무언가 감지된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22)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에는 아래쪽에 하나의 얼룩이 있다. 그것을 뼈뚫하게 보면 해골의 형상인데, 이 해골은 상징계나 상상계로 길들일 수 없는 실재의 침입을 가리킨다. 그 결과 유령이나 괴물처럼 다가오는 것이 외상이며, 이 얼룩이 바로 현실 이데올로기가 은폐하지 못한 실재의 돌출이다. 이 해골(실재)은 그 주변의 모든 사물들(현실)이 허무하다는 진리를 깨우쳐 준다.(최영송,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41쪽)

23) 기형도, 『어느 푸른 저녁』의 시작 메모, 『문학사상』 1985년 12월호, 앞의 『기형도 전집』 342쪽 재인용.

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형도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인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시로써 말해야 하며, 시가 타고난 “필연적”이며 “불행한 쾌락”이라 한다. 기형도의 시는 리얼리즘 작품들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편이다.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공간들을 미적 형상화를 통해 연출하고 있다. 이런 공간 내에서 현대인의 트라우마적 존재 양상들을 서사하는 것은 상징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유발시키고 삶의 본질을 보여주려는 시인의 고도의 시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4. 욕망이 투사된 주름 공간

이 장에서는 시인의 긍정의 에너지가 비유적으로 나타난 공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역시 현실적인 공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순수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가고자 하는 시적 주체의 욕망이 내재된 공간이다. 그것은 고대의 성스러운 신화적 공간을 연상시키는 곳이며 끝없이 이어지는 원환적 시간 속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불안과 의혹, 소외가 감지되는 현실의 공간과는 대조되는 공간인 셈이다. 그러나 이 공간들이 밝음, 안락, 기쁨 등으로만 충만한 것은 아니다. 밝음과 어둠, 안락과 불안, 기쁨과 고통 등이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공간들을 주름 공간으로 보았다. 주름은 펼침과 접힘이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다. 펼침은 증가함이나 자라남이고, 접힘은 감소함이나 줄어들고 그리고 세계의 외진 곳으로 되돌아옴이다²⁴⁾ 기형도의 시에서 유년의 공간, 자연의 공간, 신성한 공간으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작품들은 이런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일반적으로 유년의 공간은 그림고 따뜻한 곳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기

24) 질 들뢰즈, 이찬웅 역,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문학과지성사, 2004, 21쪽.

형도의 시에서 그곳은 불안이 드리워져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한다. 특히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시적 주체의 느낌이 특이하다. 보통의 아이들이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안온함을 찾아보기 힘들고, 어머니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따뜻함보다는 강인함으로써 불행한 유년기의 소년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었음을 추측케 한다.

내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누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 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애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단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처마 밑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위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폴폴 수십 장 입김이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 「바람의 집- 겨울 版畫1」 전문

이 시는 “동지의 밤”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보여준다. 어머니는 무릎에 아들의 머리를 누 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무를 깎고 있다. 다분히 서정적 풍경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공간은 으스스한 느낌을 자아낸다. “동지”의 추운 날씨, 바깥에서 부는 “바람”, “시퍼런 무”와 “칼” 등이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어린 아들은 “어머니조차 무서워요”라고 한다. 왜 어머니가 무서운 것일까. 시에서 어머니는 “칼”을 들고 “시퍼런 무”를 깎고 있다. 비록 “무딘 칼”이지만 칼은 무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무속의 상징이기도 하다. 즉 어머니는 힘을 쥔 자 혹은 신성성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쥐고 있는 칼은 악귀 혹은 아들을 해치려는 것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강인함으로 무장한 어머니의 모

습은 무서움을 안겨주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또 이 시의 “바람”은 “문풍지를 더듬던”이라 표현될 정도로 부드러운 위협적이지 않다. 시 「폭풍의 언덕」에서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 불던 바람과는 대조적이다.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있는 공간을 오히려 따뜻이 감싸고 있는 느낌이다. 게다가 그 바람 소리는 아들에게 “울음 소리”로 들리고, 아들의 “속에서 울리는 소리”이며, 언젠가 어린 아들이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하는 소리로 비유된다. 또 미래의 아들이 유년의 이 공간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어머니의 예언의 소리이기도 하다. “바람의 한숨”은 마치 이 집의 보호자가 된 듯 어머니의 한숨과 같은 느낌을 주며, “방안 가득 폴폴” 날리던 “입김”과도 동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어머니가 바람 소리를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라고 했던 것은 마치 주술적 언어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아들의 앞날을 예견한 것이기도 하고, 아들 내부의 자아의식이 앞으로 자신과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귀 기울이며 반응할 것이라는 점괘일 수도 있다. 이는 기형도의 시적 주체가 상징계의 균열을 꿰뚫어 보는 성향과도 연결될 수 있다. 유년이 결코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시적 주체는 그 유년의 공간을 동경한다. 다 커버린 자신은 그때의 자신이 아닌 것이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에서 그런 동경이나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년의 집은 시적 주체에게 통증과 불안과 신성함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는 곳이다.

기형도의 시에는 불행한 유년의 모습이 자주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는 유년의 집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다. 그곳은 아직 시적 주체가 도시로 떨어져 나오기 전의 공간이며, 상징계에 완전히 휩쓸리기 전 자연적 리듬에 따라 살았던 공간, 어머니의 힘에 의해 보호받던 공간이었다. 이렇듯 유년의 집이 많은 일들을 겪게 했지만 시적 주체는 그곳에 대한 회귀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공간감과 관련하여 과

거의 느낌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은 의도적이거나 의식적일 수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의식적인 한, 그것은 정신적 작용이라고 한다.²⁵⁾ 이 시의 시적 주체도 그러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년의 공간을 회구하는 것은 상징계 이전의 세계를 욕망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성의 에너지가 내재된 주름처럼 밝음과 어둠이 겹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저녁 노을이 지면
神들의 商店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城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누구나 寺院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城

어느 골동품 商人이 그 숲을 찾아와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뿐, 잠시 후
그는 그 공터를 떠났다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城에 살고 있다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 「숲으로 된 성벽」 전문

이 시의 자연 공간은 기형도 시인이 형상화한 공간 중에서 가장 이상적 토포필리아인 듯하다. “신비로운 그 城”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인지 그에 대한 정보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처럼 “농

25)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5, 316쪽.

부들”이 드나드는 “신비로운” “城”이라는 성의 출입 조건과,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 알려준다. “농부”는 도시 사람들과 달리 땅을 일구는 일을 하므로 자연적 리듬과 생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 성에서는 상징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부조리한 현상들이 없을 것이다. 다만 자기가 땀을 흘린 만큼 수확을 하며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소박하게 살 것이다. 물질적 부를 추구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 생활과 대조를 이룬다. 즉 물질 대신 영혼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인간은 수동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간다²⁶⁾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이 시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寺院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성 안으로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다는 부분이다. 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구름”이나 “공기”로 자신을 변환시키는 일이다. 즉, “숲으로 된 성벽”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투명성을 지녀야 한다. 공기 같은 이런 투명성은 순수, 가벼움, 상승의 이미지, 그리고 역동성으로 이어진다.²⁷⁾ 기형도의 다른 시들에서 볼 수 있는, 딱딱한 이미지의 구름과 공기와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투명성은 인물들에게 신성성과 생명성을 부여한다. 그에 반해 “골동품 商人”은 자신을 공기처럼 투명하게 변환시키지 못한 채 성벽을 이룬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그 결과 그는 “공터”만 목격하였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비록 신성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따라서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일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골동품 商人”은 이윤을 위한 상점을 운영하므로 “神들의 商店”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평화로운 城”의 농부들은 두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이런 경계를 지닌 곳이 주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6) 이동원·박옥희, 『사회심리학』, 학지사, 2000, 68쪽.

27) 곽광수, 『가스통 바술라르』, 민음사, 1995, 116-119쪽 참고.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들어가면 성스러운 공간이 있고 다른 쪽으로 가면 세속의 공간이 있다. 또한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한쪽의 인물들에겐 무가치하고, 다른 쪽의 인물들에게는 어마한 가치를 띠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기형도 시인은 자연의 위대한 힘을 믿는 시인이다. 기형도 시인의 시작 메모에서도 같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삶과 존재에 지칠 때 그 지친 것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비유는 자연이라고”.²⁸⁾ 교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지만 기형도 시인이 이런 점에 크게 공감했으므로 “가장 위대한 잠언이 자연 속에 있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연만한 주름 공간은 없을 것이다. 수많은 생명의 펼침과 접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 『우리 동네 목사님』 부분

이 시의 “목사님”은 상징계 사회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진실한 삶을 보여주려 애쓰는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상화된 종교를 믿고 싶어 하고, 자신의 믿음을 이뤄줄 것 같은 공간에서 위안받고 싶어 한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

28) 기형도의 시작 메모, 『기형도 전집』, 341쪽.

한 기대를 갖는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을 불온하게 여긴다. 목사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않고 “손뼉을 치며 찬송”하지도 않는다. “목사관 뒤통이에 푸성귀를 심다가” “예배에 늦은 적도” 있다. 동네 사람들은 목사가 “아이를 잃자” 그 원인이 목사의 불온한 생각과 행동 때문이라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목사란 이리이러해야 한다는 훈육된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이다. 소읍 교인들의 이런 행태는, 상징사회에서 일반대중이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적 환상만을 보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목사가 쫓겨나는 형국이 되지만, 목사를 감싸고 있는 배경은 신성성이 가득한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는 시적 주체의 심리적 표현이며 목사에 대한 애정의 의미를 띤다.

교회라는 공간도 푸코에 의하면 권력이 행해지는 장소다. 거기서 성직자는 신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암묵적으로 신자들에게 복종을 요구한다. 그것은 개인적 판단에서가 아니라 교회의 상징체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의 “어두운 천막교회”는 푸코가 말하는 그런 권력의 공간이 아니라 삶을 껴안으면서 실존적 탄력성을 지닌 주름 공간이다. 오히려 신의 대리 권력을 행사하는 교회를 동네 사람들이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시의 “목사님”은 시적 주체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꿰뚫어 보는 인물이며, 기도보다 선행을, 예배보다 실제 삶을 성스럽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이 소읍의 “어두운 천막교회”는 성스러움과 갈등을 동시에 내포한 공간이 되고 만다. 기형도 시적 주체에게 주름 공간은 항상 긍정적이지만 않다. 인간의 삶이 그러하듯 어떤 것이 더 낫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공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부정성과 긍정성을 이끌어 내보이기도 하고, 그가 희망하는 공간마저도 다양한 의미를 품을 수 있는 겹의 공간, 즉 주름 공간임을 보여준다.

시의 주체는 이런 “목사님”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신의 대리자였음을

증명하려는 듯하다. 이상화된 종교가 아니라 삶의 진정성을 알게 해주는 교회, 상징질서 체계에 매몰되지 않은 판단력을 지닌 “목사님”이야말로 영혼을 진정한 안식처로 인도하는 메신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두운 천막교회”에서 일반 대중이 발견하지 못한 성스러움을 전경화시킨다. “하늘에는”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는” “공구를 챙겨” 든다. 하늘의 별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신성성을 은근히 보여주고 동시에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즉, 이 시의 목사님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진정한 신들의 공간인 것이다.

기형도는 “본질의 문제와 감동의 문제가 계속해서 내 가슴을 찔다.”²⁹⁾며 시창작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적 있다. 그즈음 시인은 리얼리즘과 낭만주의의 사이에서 고민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이 두 성향의 작품들에 폭 빠지기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의 시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성향으로 창작된 그의 시는 단정적으로 어느 유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때문에 여러 겹의 겹침과 펼침을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공간 또한 생성될 수 있었는지 모른다.

5. 결론

이 연구는 기형도 시의 공간적 특성을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거리에서 시를 만들었고 거리의 상상력은 고통이었다는, 기형도의 시작 메모 또한 여기서 주목하게 될 사회심리적 공간성과 관련된다. 시인이 고통을 느낀 공간은 거리뿐만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점들에 주목한 이 연구는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기형도 시에 나타난 공간들을 고찰한 것이며, 시적 공간과 사회체계와 인간 삶의 내재적 관련성을 분석 범주로 삼았다. 이는 공간에 깃든 인간을 함의하는 것이고, 특정한 상

29) 기형도의 1982년 9월 22일 일기, 『기형도 전집』, 338쪽.

황에 처한 인간 주체와 사회적 실천을 매개하는 장을 ‘공간’이라고 본 관점이다. 공간은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기도 한다. 기형도의 시에서 형상화된 공간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의 시는 권력이 작동되는 공간에서 담론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배제당하거나, 상징계의 균열 지점을 드러내거나, 시적 주체의 토포필리아적 공간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공간들의 시적 형상화는 저항성과 더불어 기형도의 시가 미학적 개성을 갖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세 범주로 분류하여 살폈다. 먼저,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배제당하는 권력의 공간이다. 사람들이 사회체제로 편입되면서 권력에 순응하는 공간들에서 길들이려 하거나 길들어지는 삶의 현장을 보여준다. 또 순순히 복종하는 사람들과 그에 따른 고뇌의 심리를 드러내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복종은 권력을 정당한 것인 양 대중들로 하여금 오인하게끔 만드는 미시적이고 부드러운 교화의 작업에서 시작된다.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사회구조 밖으로 배제당하기도 한다. 둘째, 상징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공간에서 시적 주체는 분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없고, 낮설음을 느끼게 된다. 경계에 선 시선으로 현대인의 트라우마적 존재 양상들을 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공간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잊었던 본래적 삶의 의미를 떠올리게 하고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깨뜨려 준다. 셋째, 시적 주체의 욕망이 투사된 공간인 주름 공간을 살펴보았다. 자연과 정신, 신체와 영혼으로 가득 채워지는, 규칙화된 지각작용 공간과 혼돈 공간의 겹이라 할 지점에 주름 공간이 있다. 이는 시인의 토포필리아에 해당하며 상징계 이전의 공간이거나 희망을 배제한 공간, 혹은 시적 주체가 안주하고픈 생성의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이다.

기형도 시의 공간을 살펴본 이 연구는 현대인의 심리적 갈등과 사회적 공간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유추하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느끼며

불안 속으로 빠져드는 현대인의 심리적 증상을 사회심리적 관점으로 설명해 보고자 했다. 또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상징계적 억압을 인식하고 이데올로기적 환상과 미시적 권력을 유추해보았다. 사회심리학의 장(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심리적 경험은 여러 상황들 간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구성되며 이는 상호작용의 장(場)을 형성한다. 기형도의 시에서 형상화된 다양한 공간들도 당대의 개인적·사회적 여러 정황들과 분위기 속에서 시인의 심리적 환경 등이 맞물려 형성된 곳이다. 그 결과 독자들로 하여금 주체적·능동적 삶에 대해 숙고하게 하고 삶이 실현되는 공간을 되돌아보게 준다.

이 연구는 기형도 시인이 활동했던 1980년대의 사회적 상황과 시적 주체의 공간 인식과의 관련성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세계 속에 내던져진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인식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형도의 시는 당대의 현실 공간을 읽어내는 일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미적 형상화의 방법으로 담론화하고, 차별되는 포용의 공간을 그려내는 작업을 했다. 이것은 현실 공간이 배태하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것이지만 비현실적 공간의 이미지로 와 닿기도 한다. 시인이 마치 현실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특수안경을 쓴 것처럼 시적 공간을 실제의 생활공간과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그의 시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미학적 가치를 모두 놓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 1989.
_____,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2. 참고 논저

- 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권태호, 「기형도의 시에 투영된 ‘빈집’의 이미지와 그 지향점」, 『시민인문학』 제8집,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89-102쪽.
권택영, 「돌아온 미학: 지젝의 실재계」, 『비평과 이론』 제8권, 비평과이론학회, 87쪽) 79-98쪽.
권혁웅, 「기형도 시의 주체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제34집, 2011, 65-87쪽.
김현강, 『슬라보예 지젝』, 이룸, 2008.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 『희망의 공간』, 한울, 2001.
도린 매시, 박경환 외 역, 『공간을 위하여』, 심산, 2016.
_____,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롤랑 바르트, 정현 역, 『신화론』, 현대미학사, 1995.트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16.
_____, 허경 역, 『담론의 질서』, 세창출판사, 2020.
민경환, 「사회심리학의 방법론 논쟁 : 그 소개 및 한국의 사회심리학에 던지는 의미」, 『사회과학과정정책연구』 8권 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159-189쪽.
박찬부, 「재현과 그 불만: 라캉의 실재론」, 『신영어영문학』 제35집, 신영어영문학회, 2006, 83-106쪽.

- 변상출, 「지적: 청산과 화해의 정치학」, 『현대사상』 제6집,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10, 177-198쪽.
- 뵘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7.
_____, 현택수 외 역, 『문화와 권력』, 나남출판, 1998.
- 송지선, 「기형도 시의 근대성에 갇힌 ‘빈 장소’의 토포포비아 연구」, 『우
리말글』 제89집, 우리말글학회, 2021, 177-207쪽.
- _____, 「기형도 시에 나타난 침상도시(bed town)의 로컬리티 연구」,
『국어문학』 제60집, 국어문학회, 2015, 267-288쪽.
-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역,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b, 2005.
_____,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_____, 이현우 외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 신승원, 『앙리 르페브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윤상호, 「정치적 문화이론에서 정서의 문제와 정신분석의 역할」, 『커뮤
니케이션학연구』 제26집,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5-27쪽.
- 이광호, 『도시인의 탄생』,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 이동원·박옥희, 『사회심리학』, 학지사, 2000.
- 이안 파커, 이성민 역, 『지적』, 도서출판b, 2008.
-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 이훈구, 『사회심리학』, 범문사, 1995.
- 조동범, 「기형도 시에 나타난 근대 도시 공간 연구」, 『시민인문학』 제35
집,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87-109쪽.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 질 들뢰즈, 이찬웅 역,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문학과지성사,
2004.
- 최영송,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커뮤니케이션북
스, 2016.

한금화, 『기형도 시의 공간 의식 연구』, 『겨레어문학』 제40집, 겨레어문학회, 2008, 357-384쪽.

한석규,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Space in Ki Hyeong-do's
poetry
-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Lee, Ju-Eon*

Ki Hyeong-do is a poet who reveals the pain of life through aesthetic representation. In particular, he reveals the various spaces of human life through poetic figurations, which seems to raise a lot of questions about the contemporary society. It seems as if the poet's will to resist was strategized in various spaces. And it reminds readers of Lefebvre's words that space implies discourse having meaningful interaction with power. By analyzing the spaces embodied in Ki Hyung-do's poem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chanisms and human behavior or psychology, the poet's awareness of the problems scattered in contemporary society can be read. In this study, the social psychological meaning of space was investigated by classifying it into a cleavage space in the symbolic world, a space where power is reproduced, and a space of wrinkles where the poetic subject's desires are projected.

According to the field theory of social psychology,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experience is constructed i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various situations, which constitutes the field of interaction.

* C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various spaces in Ki's poems were also formed by interlocking the poet's psychological environment in the various personal and social situations and also atmospheres of the time. As a result, it makes them contemplate the subjective and conative life and rethink on the space in which life is realized. Although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etic subject's spatial perception and the social situation of the 1980s when Poet Ki Hyung-do was active, the issue of perception as a human being thrown into the world is a transcending task. Therefore, it can also be effective for explaining the psychological symptoms of modern people who feel unfulfilled deficiency and fall into anxiety in social aspect.

Key Words: social space, discourse, the symbolic, cleavage space, exclusion, wrinkle space

■ 논문접수 : 2021년 12월 03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21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4일

